

장애인의 인권을 되찾는 방법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는 드라마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천재 변호사인 주인공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나는 이런 드라마를 참 좋아한다. 드라마 중에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항상 진심을 다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고, 장애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좋은 시나리오와 배우의 훌륭한 연기가 합쳐져 명작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장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몇 년 전에 발을 다친 적이 있다. 오른쪽 중지 발가락이 골절된 것 뿐이지만 나는 무릎아래까지 깁스를 감아야 했다. 처음에는 고작 발가락 뼈 골절인데 이렇게까지 칭칭 감는 것을 과하다고 생각했었다. 붕대를 잔뜩 감고 처음으로 목발까지 맞췄다. 그렇게 붕대를 감고 어머니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목발에 의지해 걸었다. 깁스를 한 적은 처음이라 어색하고 다친 내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날은 학교를 가는 날이었다. 다리를 다쳤으니 나는 등교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매일 등교하며 걷던 길을 천천히 목발을 짚어가며 발을 디뎠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 시간이 이렇게 짧았나 생각이 들었다. 최대한 빠르게 걸음을 옮겼으나 횡단보도를 다 건널 즈음에 신호는 이미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문제였다. 평소에는 의식도 안하던 계단이 이렇게 많았는지. 다리를 다쳤으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은 집에

서부터 했지만, 계단은 학교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운동장을 지나 계단을 올라갈 때도 중앙 계단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도 나에게 무슨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학교생활 역시 불편함을 겪었고 특히 화장실을 갈 때마다 고역이었다. 그때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 화장실은 재래식이었다. 벽에 목발을 세워두는 것부터 용변을 보는 것,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다시 목발을 드는 것.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생활했다. 목발을 짚었음에도 걸을 때마다 심한 통증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걸어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그 이후로부터 내 어머니는 자전거로 나를 데려다 주셨다. 차로 등교할만한 여건이 안 되어 고안해낸 방법이었다. 어머니는 안장에 나를 앉히고 목발을 들게 하셨다. 그리고는 자전거 핸들을 잡아 나를 학교까지 끌어서 데려다 주셨다. 하교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수고스럽게 나를 옮겨주시는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괜히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빨리 다리를 나아 내 발로 걸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수백 번이다.

몸이 조금 다쳤다고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무능해 보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대체로 비장애인에게만 맞춰진 사회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신체기능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어느 정도 행동반경이 제한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겪은 것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발가락 일부를 다친 것으로 생활을 그 정도로 제한 받는다면, 평소 장애인은 더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만큼 불편했던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 나도 다리를 다치기 전까지는 무의식중에 장애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몇 번씩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나는 그

것을 들으면서도 아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춰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다. 그렇지만 장애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어느 날 내가 다리를 다쳤던 것처럼 누구나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 평소에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들, 건물 앞에 놓인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경사도 낮은 계단 몇 개. 그게 그렇게 나를 곤란하게 했다. 다리를 다쳤을 때는 멀더라도 옆에 낮은 경사로 이루어진 길을 찾아 돌아서 가야했다. 그마저도 없다면 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만 몇 분을 소요해야 했다. 정말 시간이 배로 걸렸다. 그때 나는 다시 장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남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로. 장애를 더 이상 남의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장애는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사람들이 장애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휠체어를 밀어준다거나 하는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은 큰 효과가 없다. 지금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별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낮은 경사에 계단, 또는 계단 옆에 경사진 공간을 설치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당장은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고 비용과 상관없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대우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즉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만한 일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체의 선한 영향력인 것 같다. 초반에 언

급한 드라마를 보면서 과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없애고 친숙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드라마를 찾아봄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게 해준다. 나는 인위적인 교육보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매체를 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적절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매체의 순기능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